

“올 하반기 취업門 더욱 좁다”

인크루트 상장사 중 699곳 대상 조사

“대졸 신입 뽑겠다” 확정 기업 66.8%

채용 계획 인원 4만5000명 수준

대기업은 4%↓ 중견·중소기업 32%↓

올 하반기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취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9일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졸 신입 사원을 뽑겠다고 확정된 상장사는 66.8%로 이는 지난해 67.1%와 매우 근접한 수치”라면서도 “기업 1곳당 평균적으로 채용하는 신입사원 수는 전년 동기 83.3명에서 올해 64.1명으로 1년 새 약 20명가량이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7일간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은 상장사 2221곳으로 그 가운데 총 699곳이 조사에 응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대기업 186곳, 중견기업 164곳, 중소기업 349곳이 응답했다. 조사는 1대1 전화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56%다.

하반기에 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 비율이 60% 이상인 점은 긍정적이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기업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5년(61.5%), 2011년(64.6%), 그리고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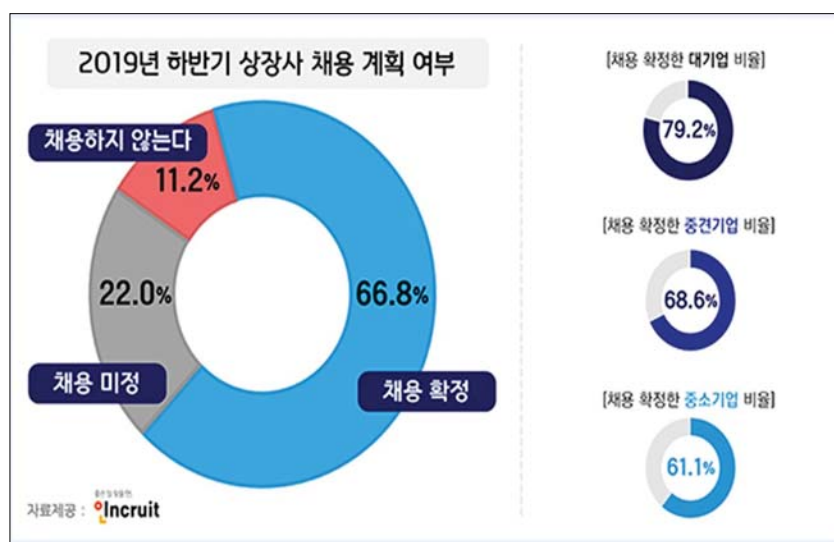
(69.9%)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다.

문제는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이 채용할 대졸 신입사원의 규모는 4만 4821명으로 작년보다 4%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채용계획과 채용규모를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91.1%가 채용의사를 보였던 대기업의 경우 올해 79.2%로 1년 새 11.9%p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4만 4884명의 채용을 예고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올해는 약 4% 줄어든 4만 2836명 채용을 예고했다.

인크루트는 “(대기업이) 지난 2017년 66.3%에서 지난해 24.8%p나 오른 채용계획을 보이며 하반기 취업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던 만큼, 대기업의 올해 채용계획 축소는 고용시장의 적신호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계획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중견기업은 지난해 62.0%에서 올해 68.6%로 6.6%p, 중소기업은 올해 61.1%로 지난해 52.3%보다 8.8%p 올랐다. 하지만 채용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예정규모는 각각 1393명(지난해 1780명)과 592명(지난해 1152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견기업은 21.7%, 중소기업은 48.6% 줄어 들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외부 변수들과 부딪히면서 채용규모를 극명하게 줄인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결국 채용을 확정된 기업 비율은 전년 수준이지만 실제 채용 인원이 줄어들어 올 하반기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올 하반기 전체 기업의 2/3가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 의사를 비추며 일자리 창출에 부담은 고부적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채용 규모가 일제히 줄어들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증발’ 수준으

로 급감하며 결국 하반기 채용 문이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직자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구직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크루트는 이러한 채용 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인크루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네이버, 포스코, CJ제일제당, 그리고 롯데그룹 총 4곳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참석자 전원에게 경품이 제공되고 추첨을 통해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기, 문화상품권, 온라인 어학강의 수강권 등을 제공한다. 선착순 2000명 마다 감소로,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면 된다.

뉴스1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장인 추석 경비 작년보다 10만원 줄어
귀성길 12일, 귀경길 14일 가장 붐빌 듯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직장인들이 용돈이나 선물 등에 평균 35만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19일 직장인 2404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예상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지출비용이 평균 35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람인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인 45만원과 비교해 10만원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21%가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할 것이라고 대답해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16.7%), ‘30~40만원 미만’(15.3%), ‘10만원 미만’(13.8%), ‘40~50만원 미만’(13.4%), ‘50~60만원 미만’(8.8%) 등의 순이었다.

지출비용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다. 기혼 직장인의 경우 46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미혼 평균인 29만원 보다 1.5배 이상 많이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예상 경비 조사에서 집계됐던 금액인 기혼 평균 60만원, 미혼 평균 35만원에 비해 14만원, 6만원 줄어든 수치다.

사람인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



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면서 추석경비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실제 직장인 89.6%는 추석경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담스러운 경비로는 ‘부모님 및 친지 용돈’(64.8%,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선물 구입 비용’(28.2%), ‘외식, 여가 등 추가 지출 비용’(19.6%), ‘차량상 및 명절음식 준비 비용’(18.5%), ‘귀성 교통비’(15.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경비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60.3%가 추석이 고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귀성 일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12일(42.6%)이 가장 많았고, 귀경은 14일(3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뉴스1

기아차, 2020년형 스포티지 출시...2342만~2965만원

고객 선호 편의사양 신규 적용으로 상품성 높여

기아자동차가 디자인 고급감 강화, 고객 선호 편의사양 신규·확대 적용으로

상품성을 강화한 2020년형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형 스포티지는 다크 크롬을 적용한 기존 모델



델과 달리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면 측면, 후면 가니쉬 등에 유광 크롬을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또 전 좌석에 시트 벨트 리마인더(SBR/Seat Belt Reminder)를 기본 적용하고, 운전석 자동패커 제어(공조, 통풍, 열선시트, 히트 스티어링 휠 연동 제어)를 신규 적용했다.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고객 최선호 사양인 1열 파워·통풍 시트, 2열 히트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ETCS)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다크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 트림에서도 주요 편의사양 패키지인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패키지 등을 옵션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해 고객선택권 폭을 대폭 넓혔다.

기아차는 2020년형 스포티지는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했음에

도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솔린 모델은 엔트리 트림에서부터 주요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프레스티지 2342만원, 시그니처 2670만원, △1.6디젤 모델(트렌디 2381만원, 프레스티지 2588만원, 시그니처 2916만원) △2.0디젤 모델(트렌디 2430만원, 프레스티지 2637만원, 시그니처 2965만원) 등이다.

한편, 기아차는 2020년형 스포티지 출시와 함께 웹 예능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9월 중 기아차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20년형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 고객이 원하는 성능, 공간, 편의사양을 모두 갖췄다”며 “고객 니즈를 반영해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광주전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 12곳 선정

최대 1억원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인셀(주)티디엠 등 총 12개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인정시험마크) 등 418개의 인증에서 4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해당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50~7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지원한다. 마지막 3차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규격 인증은 수출통관의 필수 조건이자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가 된다.

하지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김문환 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